

정 통 부 , IT중 소 벤 처 기 업 공 간 부 족 문 제 완 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전국의 산하기관, 체신청, 집중국의 회의실을 IT중소벤처기업에 개방함으로써 업체들의 애로사항인 공간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IT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개별기업이 자체 회의실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종 세미나, 국제회의, 신제품발표회, 기업IR 등의 행사에 장소를 임차할 수밖에 없어 비용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정통부에서는 업체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의 16개 산하기관, 집중국, 체신청 등 관련기관의 회의실을 IT중소벤처기업인들에 개방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2007년 11월 완공 예정인 상암동 IT Complex에 IT중소벤처기업인을 위한 공용 컨퍼런스 룸을 설치함으로써 업체의 오랜 염원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다. 이번 정부 관련기관 공간 개방은 범부처적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에게 정부문턱을 낮추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실 사용을 희망하는 IT중소벤처기업은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 또는 전문협의회 사이트(www.itsmerp.or.kr)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중 기 청 , 창 업 보 육 사 업 중 기 청 으 로 통 합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업보육사업이 중소기업청으로 통합되고 대학종합평가 때 창업지원실적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창업보육 기능이 중복되는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와 신기술창업지원센터는 중기청 창업보육센터(BI)로 통합, 운영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새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중기청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를 활용,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등으로 특화해 육성하게 된다. 또 대학의 창업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 평가영역에 창업지원실적 분야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중과가 면제되고 국립대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는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인하된다.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구조조정 후 생산형 BI로 전환해 벤처캐피털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중 기 청 , 하 반 기 기 술 이 전 접 수 시 작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200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8월 1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 중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나 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1년 이내, 개발비의 75%까지(최고 1억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상반기에 1차로 40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약 30여 개 기업에 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대상 기술은 이전계약 체결 후 1년 미만의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 ▲지적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 완료된 기술 ▲각종 학회지·논문·간행물 등에 수록 소개된 기술 ▲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로 보유기관과 계약 체결된 기술 등이다. 다만 현재 이전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해 과제를 수행 중에 있거나, 정부출연 회수금 및 기술료 미납 등 각종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대상 기업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신청·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8~9월 중 각 지방중소기업청의 현장평가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거쳐 금년 9월 말쯤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한 국 생 산 기 술 연 구 원 , 6 시 그 마 경 영 R & D 센 터 로 탈 바꿈

실용화 중심 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김기협, 이하 생기원)이 7월 26일 6시그마 경영혁신 선포식을 갖고 경영과 행정, 연구 전 부문에 있어 경영혁신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생기원은 김기협 원장을 단장으로 한 '6시그마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부터 800여 명의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6시그마 화이트 벨트(White Belt)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원내 6시그마 방법론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블랙 벨트(Black Belt)' 25명을 양성해 2007년까지 6시그마 방법론을 업무 전 영역에 보급, 본격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생기원이 6시그마를 도입하게 된 데에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 대기업, 나아가 글로벌 기업들과 상대해야 하는 중소·벤처기업들로서는 시대적 대세인 6시그마 도입을 피할 수 없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예산이 없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인 생기원이 먼저 6시그마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생기원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6시그마를 전파시킨다는 전략이다. 6시그마가 정착될 경우, 연구 개발 전 단계에서부터 수요 조사를 실시해 이를 근거로 아이디어 도출, 연구과제 선정 및 솔루션 개발, 연구개발 결과의 기업이전 등 R&D 전 프로세스에 걸쳐 철저히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는 '고객 지향 R&D센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중 소 기 업 정 보 화 경 영 원 정 보 화 아 웃 소 싱 사 업 추 진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원장 양해진, 이하 경영원)은 중소기업 대상의 '정보화 아웃소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서 개발한 중소기업용 '정보화 아웃소싱 프레임워크(가이드라인)'를 현장 적용해 아웃소싱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8월 5일까지 6개 내외의 지원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아웃소싱 지원기간은 3개월이며, 분야는 ▲응용소프트웨어 기능향상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전산인프라 및 설비운영 ▲PC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프로세스 아웃소싱 ▲토털 아웃소싱 등이다. 아웃소싱 추진기업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의 최대 60%까지 18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 기업은 8월 중 아웃소싱 전문 업체와 경영원간 3자 협약을 체결한 뒤 시작할 수 있다.

경영원 측은 국내 중소기업이 정보화 활용능력의 부족,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정보화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참여 이후에도 사후관리의 어려움이나, 공급자(IT업체)의 도산 등으로 인해 시스템 운용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T 벤 치 기 관 협 의 회 , 법 률 컨 설 팅 자 문 단 운 영 키 로

전국 IT벤처기업 법률지원 기관협의회(의장 이교용, 이하 협의회)가 산하에 IT법률컨설팅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12개 지역의 IT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기관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협의회 대표들은 IT관련 지적재산권 교육과 법률상담, IT벤처기업의 해외수출 시 법률지원 등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내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IT법률컨설팅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BRICs)' 4개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 있는 IT법률 전문가 풀을 활용한 법률컨설팅, 국내 대학에 입주하고 있는 IT기업 종사자와 예비창업자들의 법률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IT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권역별 세미나 개최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IT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협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지방의 IT기업·대학·협의회 구성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코 스 닥 , 합 병 요 건 완 화 프 리 보 드 우 대

코스닥상장기업과 비공개 기업의 합병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또 코스닥 상장 시 엄격하게 적용되던 부채비율 요건도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가 인정되고, 1년 이상 프리보드 지정기업은 상장신청 시 지분변동제한요건이 10% 이상 주주로 완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본부장 광성신)에 따르면 인수합병(M&A)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 7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상장기업이 코스닥상장기업보다 자산, 자본금 및 매출액 중 2가지 이상 더 큰 경우에만 합병요건을

적용받는다. 코스닥 상장 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요건도 업종 또는 코스닥시장 전체평균의 1.5배 수준인 현 제도를 유지하되, 재무적 안정성 및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경우 부채비율요건 적용의 예외가 인정된다. 프리보드 지정기업 중 지정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은 제한대상이 최대주주 및 10% 이상 주주로 완화된다. 이밖에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벤처기업이 기술평가 후 6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한해서만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기술평가 결과의 유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술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벤처기업은 상장심사 시 경상이익 등 이익요건 적용이 면제된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벤처경영자과정 13기 모집

1998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이래 성장기에 있는 벤처기업 최고경영자 및 벤처캐피털리스트, 대기업 임원들을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온 '최고벤처경영자과정' 이 13기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 과정내용

강의 및 Business Clinic, 워크샵, 중국 해외연수, 부부동반 모임 및 동기모임

■ 모집요강

- **모집인원** : 35명 내외
- **교육기간** : 2005년 9월 12일(월)~2006년 1월 16일(월) 매주 월요일
- **교육시간** : 오후 2시 30분~오후 8시 30분 (90분씩 3강좌)
- **지원자격** : * 벤처기업, Inno-Biz의 CEO, 임원 및 벤처캐피털리스트
*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CEO, CTO
* 대기업의 신제품 개발, 사내벤처 담당 임원 및 사업책임자
* 기타 이에 준하는 간부급 정부공무원 및 사회지도층
- **모집기간** : 2005년 8월 22일(월)까지

• **원서교부** : 요청자에게 송부 또는 인터넷을 통한 교부 (www.kaistgsm.ac.kr/executive/avm)

• **원서접수**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이메일, 팩스 이용 가능)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2동 207-43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벤처경영자과정

• **문 의** : 전화 02-958-3691

팩스 02-958-3694

이메일 avm@kgsam.kaist.ac.kr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상세한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 1부
회사소개자료 1부
재직증명서 1부
벤처기업인 경우, 확인서 증빙자료 사본 1부

• **등록금** : 500만원

• **합격자발표** : 2005년 8월 24일(수), 개별통보

이 사 장 선 임 백 지 화 , 출 범 식 연 기

차일피일 발표를 계속 미루던 대덕R&D특구 지원본부 이사장 선임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과학기술부는 7월 20일 '3차 대덕특구지원본부 설립위원회'를 개최, 이사장 선임이 안 돼 지원본부 설립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해 사실상 이사장 선임을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원본부 설립도 연기됐을 뿐만 아니라 지원본부 주최로 7월 29일 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대덕특구 출범식' 행사도 9월로 연기됐다. 이 행사는 28일 대덕 특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특구의 출범을 알리고 특구의 성공을 다짐하기 위해 현판제막, 개식선언 등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대덕특구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본부 이사장 선임은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덧붙여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사장 선임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5 제6회 여성벤처기업 투자마트 참여기업 접수 안내

여성벤처기업협회(회장 송혜자)에서는 여성벤처기업인을 위한 전문 투자 유치 및 사업설명회, 투자 기회 확대 및 제휴기회 제공을 위해 제6회 여성벤처기업 투자마트를 개최한다.

■ 행사개요

- 주 최 : 중소기업청
- 주 관 : 한국여성벤처협회, 전자신문사
- 참가대상
- 신청분야 : 제조·IT·BT·CT·기타업종
- I.R 기업 : 심사를 통과한 3개 기업
- 투자기관 : 벤처캐피털사, 창업투자회사, 대기업 투자팀 등

■ 장소, 일시

2005년 10월 13일(목) 오전 10시(삼삼동 코엑스 208호)

■ 제출서류 및 문의

- 제출마감 : 2005년 8월 8일(월)까지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투자제안사업계획서 각 5부씩, 해당양식은 협회 웹사이트(www.kowv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방식 : 등기우편 또는 직접접수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여성벤처협회 투자마트 담당자 앞
- 문의 :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02-6009-8503/8505

■ 기타 행정사항

행사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정부지원예산으로 여성기업에게 무료로 제공, 2차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강동기술평가센터에서 평가

- 서류심사 : 재무제표, 투자제안, 사업계획서 검토
- 현지실사 : 경영진 조직구조 평가, 시장성 및 영업력 평가, 기술력 평가, 재무구조 평가

VD Scrap

“기술무역 적자 더이상 안된다”

정부 산하기관·벤처업체 총체적 민관 공조

대대적 제도 정비·해외거점 확대 추진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과 벤처기업이 총체적으로 협력하여 기술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해외거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 현지에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과 벤처기업이 총체적으로 협력하여 기술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해외거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 현지에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2005년 7월 21일 전자신문 1면
우리나라 기술무역 적자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산하기관과 벤처업체가 민관공조로 기술수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연구소 출신 벤처기업들이 뜬다

ENF테크·모인에너지·에트레이이 등 특화된 기술 부각 '블루오션' 영역 개척

벤처기업들이 연구소 출신 벤처기업들이 특화된 기술력으로 원자력, 에너지, 우주 등 일반기업들이 뛰어들기 어려운 분야에서 경쟁없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ENF테크, 모인에너지, 에트레이이 등 특화된 기술 부각 '블루오션' 영역 개척

벤처기업들이 연구소 출신 벤처기업들이 특화된 기술력으로 원자력, 에너지, 우주 등 일반기업들이 뛰어들기 어려운 분야에서 경쟁없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 2005년 7월 18일 한국경제 A17면
정부출연연구소 출신 벤처기업들이 특화된 기술력으로 원자력, 에너지, 우주 등 일반기업들이 뛰어들기 어려운 분야에서 경쟁없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